

한국학문의 선진화·세계화를 위한 학술진흥 방안

조동일 *

1. 머리말

한국학문의 현황과 진로를 둘러싸고 심각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¹⁾ 원론적인 문제도 논의해야 하지만, 학문 발전을 가속화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또한 긴요하고 다급한 과제이다. 『우리 학문의 길』(서울: 지식산업사, 1993)과 『인문학문의 사명』(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에서, 나는 지금까지의 대학운영과 학술진흥 정책이 잘못되어 한국학문을 선진화하고 국제화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거듭 비판한 바 있다. 비판을 했으면 대안을 제시해서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게 할 책임이 있다.

지금까지 해온 학문이 잘못되었다고 나무라고 새로운 학문을 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기존 지식의 전달에서 벗어나 스스로 분발해 자발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 수입학에 머무르지 말고 창조학을 이룩해야 한다. 외세 의존의

* 본과 교수

1)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97 특별과제 연구비에 의해 이루어졌다.

사고방식을 버리고 민족사의 미래를 주체적으로 창조하는 지침이 되는 학문을 해야 한다. 세계학문의 변두리에 밀려나 있는 한국학문이 세계학문의 중심지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열거하는 요구조건을 요약해서 “자발적·창조적·주체적·세계적” 등이 관형사가 달린 새로운 학문을 해야 한다는 말은 누구든지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새로운 학문을 하는 것이 실제로 가능한가 하는 데 있다. 헛된 꿈을 두고 옆을 올리는 것은 어리석다. 누가 그런 학문을 해야 하는가도 문제이다. 요구조건을 내세우는 사람이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다그치는 것은 무책임한 말이다. 어떻게 하면 그런 학문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해서, 국가의 학문정책이 바뀌면 된다고 하는 것도 잘못이다. 학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알지 못하는데, 학문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정책을 바로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만용에 지나지 않는 파이의욕이 일을 망칠 수 있다.

그러므로 구경하는 사람이나 일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 일을 하는 당사자가 발언을 해야 한다. 다른 누구에게 시키거나 미루지 말고 내 자신이 새로운 학문을 실제로 해서 그 가능성을 입증하고 방향을 구체화해야. 지금까지의 잘못을 나무랄 자격이 있고, 국가의 학문정책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가 타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내 자신이 학문의 혁신을 실제로 하면서 그렇게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도움이 되는 방법을 어떻게 강구해야 하는가 절실히 깨달은 바를 이 글에서 제시한다.

지금부터 전개하는 논의가 모든 학문에 일제히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학문은 크게 나누면 인문학문·사회학문·자연학문의 세 분야가 있다.²⁾ 또한 학문을 국학과 수입학으로 나눌 수도 있다. 나는 그 가운데 국학인 인문학문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어서, 거기서 논의를 시작한다. 그래서 인문학문과 사회학문에는 널리 타당한 주장을 폄고자 한다. 학문의 본질은 세 학문에서 모두 일치하므로, 학문진흥 방안의 원칙론은 자연학문에도 해당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구

2) 그 셋을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이라고 지칭하는 관례를 시정하고, 인문학문·사회학문·자연학문이라고 일컬어야 서로 대등한 관계와 공통적인 원리가 분명해진다고 『인문학문의 사명』의 <인문학문의 유래와 위치 재검토>에서 밝히고 했다.

체적인 방안은 서로 다를 수 있다. 가령 연구가 저서 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인문학문과 사회학문의 범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인문학문에서 시작해서 사회학문으로, 거기서 더 나아가 자연학문에까지 이르는 길을 찾고, 국학이 수입학문을 아울러 세계학문으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학문을 하고 학문을 논해왔다. 위에서 든 두 책에서 학문을 방향과 방법을 시비한 것 외에, 한국문학연구에서 출발해서 세계문학사를 다시 쓰는 데까지 나아가 문학사의 일반이론을 혁신하려고 분투하면서 내놓고 있는 일련의 저서가 우리 학문의 진로를 설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믿고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³⁾ 그런 작업을 하면서 한국학문을 선진화하고 세계화하려고 내 스스로 모색하고 경험하고 고난을 겪는 사정에 근거를 두고, 학술진흥 정책의 전환에 관한 구체적인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한 나라의 학문을 논하면서 많은 사람의 경우를 조사하고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현황에 대한 평균적인 사항을 검토하자는 것은 아니므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⁴⁾ 학문의 혁신이 실제로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통계적인 방법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실증적인 방법으로도 밝혀낼 수 없다. 연구의 양이 아닌 질, 연구되어 나온 결과보다는 연구진행의 내밀한 과정을 문제삼아야 하므로, 내 자신의 체험을 증거로 삼지 않고서는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다.

이 글은 학문정책을 바꾸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도달점으로 삼아야 하지만, 학문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검토를 통해서 그 일을 해야 시행착오나 되풀이하는 임기응변을 단호하게 청산할 수 있다. 학문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학문원론부터 고쳐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 학문은 오직 과학이어야 한다는 것이 학문을 망친 장본이다. 학문은 과학에 치우치지 않고 과학과 통찰을 아울러야 한다는 것이 내가 다시 정립한 학문론의 핵심명제이다.⁵⁾ 이 글에서 전개하는 모

3) 그런 저서가 『세계문학사의 허설』(서울: 지식산업사, 1996); 『카타르시스·라사·신명 풀이, 연극·영화미학의 기본원리에 관한 生克論의 해명』(서울: 지식산업사, 1997); 『동 아시아 구비서사시의 양상과 변천』(서울: 문학과지성사, 1997)으로 나와 있다.

4) 이성호, 『한국의 대학교수』(서울: 학지사, 1992)가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대학과 대학교수의 문제를 다룬 업적의 좋은 본보기가 된다. 거기서는 교수의 임무 수행에서 나타나는 대체적인 주제와 평균적인 사항을 밝히면서 통계적인 방법이 유용함을 입증했다.

든 논의가 거기서 출발된다.

학문을 혁신하는 과업은 과학에 대한 통찰을 요구한다. 통찰이 그 자체로 분리되지 말고, 과학을 대상으로 하고 과학으로 구체화되는 방식으로 과학과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을 해야 한다. 그런데 그것과는 반대로 통찰이라는 연구 대상을 과학의 방법으로 다루려고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 과학적 실증을 요구하는 학문을 하면서, 학문은 어떻게 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깨달아서 얻은 통찰을 근거로 삼아, 학문 혁신의 방안을 정립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다. 통찰을 과학화한 성과는 나의 개별적인 논저로 미루고, 여기서는 과학에 대한 통찰을 제시한다.

이하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연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몇 항목에 걸쳐 제시하는 것이 가장 진요한 과제이다. 그 다음에는 연구를 활성화기 위한 지원책 가운데 가장 진요한 도서확보의 대책을 제시한다. 끝으로 한 국학문의 세계화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직접 소용하는 국제학술회의 개선책과 번역사업의 방법을 마련한다.

2. 연구비 지급 제도 개선방안

2.1. 연구비 사용의 실제 상황

연구비는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을 먼저 분명하게 해야 모든 문제가 풀린다. 연구비는 연구에 직접 소용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한 다른 부수입은 생각하지 않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연구의 의욕을 북돋우는 데도 도움이 된다. 연구비가 없어도 연구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연구하는 데는 돈이 든다. 또한 연구하는 사람은 궁핍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한다.

연구에 직접 소용되는 비용이 무엇이며 어느 정도인지 자명하다고 할 수는

5) 『인문학문의 사명』의 <과학과 통찰을 아우르는 학문>에서 한 작업이다.

없으므로, 내 자신의 경우를 예증으로 삼아 논의를 전개한다. 나는 1997년 8월 6일부터 22일까지 15일 동안 유럽에 가서, 네덜란드 레이덴에서 열린 국제비교문학회(International Comparative Literature Association) 제15차 발표대회에 참가해 논문을 발표하고, 그 기회에 네덜란드,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그 여섯 나라 아홉 개 도시의 서점을 순방하면서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해서 우송했다. 그렇게 하는 데 소요된 경비를 대강 계산하면, 항공료 140만 원, 육상교통비 60만원, 숙식비 100만원, 도서구입 및 우송료 500만원, 계 800만 원 정도가 된다. 그 액수가 1997년 동안 사용한 연구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⁶⁾ 그 돈을 필요해서 썼는가 아니면 공연히 썼는가, 어떻게 마련했는가 따지고 밝히는 것이 이제부터 할 일이다.

국제비교문학회 발표대회는 문학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가장 많은 나라 학자들이 참가한다. 그런 학회에 가서 논문을 발표하면 학문의 동향을 알고, 내 학문과 남들의 학문을 주고받을 수 있다. 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세계적인 범위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느 정도의 의의를 가지는가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를 위한 의욕과 자극을 얻을 수 있다. 남들의 연구를 뒤따르지 않고 앞질러 나가는 데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다.

그런 학회에 참석한 기회에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세계문학사의 이론 정립 같은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연구용 도서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수고를 아낄 수 없다. 국내 도서관의 장서는 너무 미비하고, 내가 그 동안 모은 자료도 많이 모자라 계속 보충해야 한다. 외국도서를 주문해서 우편으로 구입하는 방법도 줄곧 사용하고 있지만, 현지에 가서 책을 직접 보고 내용을 검토해서 사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대책이다.

참가 여비 보조를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신청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다시 내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신청해서, 100만원 받았다. 나머지 700만원은

6) 1997년 12월 겨울 방학 때에는 다시 프랑스에 가서 도서를 사모을 예정이다. 박사학위는 문 심사를 위해서 가기 때문에 여비는 부담하지 않고, 도서구입비는 몇 백만원 써야 한다.

연구비로 충당해야 했다. 다행히 1997년과 1998년 두 해에 걸쳐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세계사”의 저술을 하는 연구비 1,000만원을 서울대학교에서 받게 되어, 그 가운데 반액인 500만원을 이미 수령했다. 성곡학술문화재단에 신청한 1997년도의 연구과제 “한국·일본·월남 중국문학 번역의 역사적 변천 비교 연구”도 채택되어, 총액 1,000만원 가운데 300만원을 이미 받았다. (그 뒤에 중간연구비 300만원을 다시 받았다.) 800만의 연구비를 이미 받았으므로, 그 가운데 700만원을 쓸 수 있었다.

연구비가 부족하니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연구비의 액수가 아니고 연구비를 사용해서 연구를 하는 데 따르는 조건에 있다. 부적당한 조건이 붙은 연구비는 연구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낭비가 된다. 연구비를 계속 증액하면 연구가 잘되리라고 오편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세하게 밝혀 논할 필요가 있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세계사”라는 제목의 저술을 하는 연구는 동아시아 한문문명권의 경우를 이백자 원고지 2,000장 분량의 책으로 써놓은 다음에, 그것과 비등한 분량의 원고를 다시 쓰고, 지금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서, 책이 두 권 이상 되어야 할 것 같다. 한문문명권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문명권, 아랍문명권, 라틴어문명권의 경우를 모두 다루어야 하니, 간단한 일이 아니다. 이번에 유럽에 가서 유럽의 중세문명에 관해 자세하게 논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왔으므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졌다.

국제비교문학회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은 “Historical Changes in the Translation from Chinese Literatur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n, Japanese, and Vietnamese Cases”인데, 그것이 바로 성곡학술문화재단의 연구과제이다. 국문원고를 이미 이백자 원고지 600장 정도의 분량으로 써놓고, 그것을 2,300 단어의 영문원고로 만들어 거기 가서 발표했다. 성곡학술문화재단에서는 연구비를 지급한 논문을 학회에서 발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데, 그 의무를 국제비교문학회의 발표에서 이행했다.

인문학문 분야의 전공자가 한 해에 위에서 든 것과 같은 연구비를 두 건을 받은 것은 혼란한 일이 아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논문을 쓰는 연구비 800만원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 받기까지 했다. 대단한 행운을 누리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연구비를 받는 것이 나로서는 처음이고, 다른 사람의 경우에도 거의 없지 않을까 한다.

그렇다면 연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자료를 펴놓고 작업을 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아 고생을 하고, 연구와 강의가 일치하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등의 주변의 사정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연구의 내부 사정만 들어, 연구가 계획한 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해보자.

연구가 계획한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작업의 분량이나 성과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빼어나 계획과 어긋난다. 분량이 초과하는 것은 줄이면 된다. 일단 줄인 것을 제출하고 나중에 출판할 때 더 보태면 된다. 연구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없는 고민거리이다. 처음 계획한 연구를 하다가 새로운 광맥을 발견해서 옆길로 가고, 착상이 새로워져 연구의 방향이 바뀐다. 하고 싶은 연구를 다 해놓고, 연구계획서에 써낸 연구의 결과만 보고하고 다른 것은 별도로 활용하면 된다고 할지 모르나, 잘라내기 어렵다. 잘나내면 연구의 질이 떨어지고, 의의가 줄어든다.

나는 지금 공동문어문학의 등장을 논하다가 중세가 시작된 역사적인 전환을 밝히는 데 이르고, 그 작업이 문화되어 冊封체제의 비교, 금석문의 변천 등 문학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 역사학의 작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거기서 물러나야 하는가? 문명권 전체의 천자가 각국의 국왕을 冊封하고, 국왕은 천자에게 朝貢을 하는 제도는 유독 한국에만 강요되어 주체성을 손상시켰다는 속설은 사실이 아니고,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모든 국가가 공유한 중세적인 질서관 구현의 방식이며, 다른 여러 문명권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형태로 나타났다. 여러 문명권의 사례를 널리 모아 이에 대한 광범위한 비교연구를 해야 한국사에 관한 누적된 의문을 풀 수 있고,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를 통괄해서 이해하는 이론을 마련할 수 있고, 근대 다음 시대를 맞이하는 세계학문의 새로운 발전을 선도할 수 있다.

책봉체제 비교연구에 관해서 지금은 이백자 원고지 400장 정도의 분량의 초고를 작성해놓았다. “공동문어문학과 민족어문학의 세계사”의 한 부분이기에는 너무 길지만, 미비점이 많아 불만이다. 그것을 더욱 구체화하고 잘 다듬어 별개

의 저서를 내놓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그러자면 더 많은 자료와 시간이 필요하다. 다른 일은 그만두고 한동안 거기 매달려야 완성품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일본·월남 중국문학 변역의 역사적 변천 비교연구”라는 연구 과제는 그 결과를 이백자 원고지 250장의 분량의 논문을 제출하라고 하고, 10% 내외에 분량을 가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써놓은 분량이 600장 정도이다.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은 줄이고 논문제목을 그대로 살리려고 해도 그렇게 되었다. 부분적으로 다루다가 만 문제가 많이 있어 작업이 계속 확대될 수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이미 다녀온 일본·월남·중국을 세 나라를 모두 다시 가야 한다.

위에서 든 두 연구는 연구결과를 학회지에 게재하라고 하는 요구가 없어 다행이다. 연구결과를 학회지에 게재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분량 때문에 큰 고통을 겪는다. 학회지에서는 이백자 원고지 130장 정도를 넘는 논문은 실지 않는 것이 예사인데, 내가 쓰는 논문은 흔히 그 몇 배가 넘는다. 그래서 언제나 고민이다.⁷⁾ 연극미학의 비교연구에 관한 논문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500만원을 받고 썼는데, 분량이 1,300장 정도 되었다. 그런데 학회지에 발표해야 하므로, 한국구비문화학회의 학회지에 사정사정해서 250장 분량을 실었다. 그것은 연구 결과를 일부 빌췌한 것에 지나지 않고, 전문은 단행본으로 냈다.⁸⁾ 그 단행본은 연구비 지급처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 연구 결과로 등재되지 않았다.

연구비 사용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국제비교문학회 발표대회에 참가하는 여비는 위에서 든 두 가지 연구비 어느 쪽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니, 연구비를 유용한 셈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지급한 연구비는 사용내역을 보고할 필요가 없는 저술연구비여서 다행이지만, 성곡학술문화재단에서 지급한 연구비의 사용내역을 원래의 계획에 맞추어 보고하려면 허위보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어느

7) 지금 쓰고 있는 이 글 또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논문이므로, 학회지에 게재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많은 고민거리가 생긴다. 분량이 길어 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 말을 줄이면 된다. 연구논문다운 외형을 갖추는 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학술진흥방안에 관한 글을 어느 학회지에서 실어준단 말인가? 내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학회가 열 개 가깝지만, 이런 글을 실어주는 학회지가 있을 것 같지 않다.

8) 그 책이 바로 『카타르시스·라사·신명풀이, 연극·영화미학의 기본원리에 관한 生克論』의 해명이다.

연구비를 어디다 쓴다는 생각이 없고, 회계장부도 아예 만들지 않으니 계산이 맞을 수 없다.

위에서 유럽에 가서 쓴 비용을 백만원이나 십만원 단위로 적기만 한 것은 구체적인 액수는 기억이 없고, 기록을 남기지 않아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금년에 받은 두 연구비는 나중에 연구비 사용 영수증을 내라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안심하고 있지만, 영수증을 모두 보관했다가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큰 곤욕을 치룬다. 연구를 하는 것보다 연구결과를 제출할 때 침부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훨씬 힘이 듈다.

2.2. 연구비 지급 제도 개선

지금까지 연구비 사용에 관한 내 자신의 경험과 고민을 길게 말한 것은 연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 삼기 위해서이다. 다른 사람들이 겪은 바를 조사해서 밝히기 어려우며, 연구계획과 실제 연구 사이의 불일치에 관한 사항은 기꺼이 밝히려고 하지 않은 부분이다. 설문지에 의한 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 것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없다. 내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이 누구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가시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할 수는 없으나, 연구작업의 근본이치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보고, 논의를 확대하고 일반화하기로 한다.

지금의 제도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사를 받아 심사에 통과되면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계획서에 쓴 대로 연구를 완결하고, 연구비도 계획한 대로 사용하라는 것이다. 연구계획서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써야 연구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심사위원들이 이해하지 못하거나 납득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 기존연구에서 멀리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파격적인 구상을 하는 것은 금물이다. 연구계획서를 심사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심사위원을 잘 몰라 아무리 공정하게 운영된다 해도, 폐쇄성과 보수성을 수반한다.

아직 연구경력이나 연구업적이 두드러지지 않은 초년생이 학문의 역사를 온통 바꾸어놓을 만한 착상을 얻어 작성한 연구계획서가 있다고 하면 그런 것은 채택될 가능성성이 없다. 국문학자가 역사학연구를 하겠다는 계획서를 내면 받아

들여지지 않는다. 논증문이 아닌 설명문으로 이루어진 연구계획서에서 새롭고 독창적인 연구의 구상을 납득할 수 있게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연구계획서를 그렇게 작성했다 하더라도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심사위원 자신이 그 연구를 해보아야 파악 그렇다고 확신할 수 있는데, 그럴 사람도 없고, 그럴 겨를도 없음은 물론이다.

연구계획서가 심사에 통과해서 연구비를 받은 모든 연구는 하나 예외없이 계획을 어기고 연구비를 유용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연구를 완결한 다음에 연구계획서를 내면 되고, 나도 그런 방법을 더리 썼는데, 그 경우에는 연구결과를 공연히 한 해 묵하는 폐단이 있다. 한 해 묵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먼저 그런 연구를 해내면 큰 낭패를 보는 위험부담이 있다.

연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다. 열심히 하면 계획대로 연구하거나 계획한 것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치를 잘못 알고 헛된 노력을 해서 그런 것만은 아니다. 연구작업을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예기치 않던 난관이 생기고, 있어야 할 자료가 없고, 가설에 무리가 있고, 논증방법이 발견되지 않을 수 있다. 어떤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연구자 본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소중한 경험이고 지침일 수 있다.

연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인데, 지금의 제도는 연구를 기지의 세계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규정하고 있다. 연구를 하다가 실패한 사람이 현행 연구비 지급제도의 잘못을 나무라는 정당한 발언을 설득력 있게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그렇지만 그 경우에는 실패의 원인이 나태에 있다고 하는 역습을 당할 수 있으므로, 계획보다 더 많은 연구를 해서 계획을 어기고 있는 내가 나서서 발언을 하면서 실패하는 쪽의 주장까지 대변한다.

연구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이므로, 연구의 진행이나 결과가 연구계획서와 일치하지 않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모든 학자가 하는 모든 연구에서 예외없이, 필연적으로 있는 원이다. 그 때문에 누구나 고민하고, 차질을 감추기 위해서 애쓰는 비열한 짓을 한다. 연구계획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의 서식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작성 방법을 한층 까다롭게 해서 차질이 생기지 못하게 막고, 이미 생긴 차질은 감추지 못하게 해도 소용이 없다. 연구계획과 실제연구 사이의

불일치를 막으려고 하는 모든 일이 연구를 방해하기만 한다.

연구를 계획대로 하지 않는 약점을 들어 학자를 문책해서 길들이는 데 목적을 둔다면 지금의 제도를 존속시킬 일이다. 군사정권 시절에 교수를 다스리는 방법의 하나로 지금과 같은 연구비 지급제도를 만들지 않았던가 하는 의구심을 펼칠 수 있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으므로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교수를 유인하고 매질하기 위해서 연구비를 사용할 의향이 없다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 연구를 방해하는 제도를 버리고 연구를 촉진하는 제도를 택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연구비는 연구업적이 발표된 뒤에 지급하면 된다. 연구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자발적인 동기에서 연구를 한 다음 그 결과가 출판되면 연구비 지급을 신청하자는 것이다. 자발적인 동기에서 독창적인 연구가⁹⁾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방법을 바꾸어야 한다. 연구 계획이 아닌 결과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연구계획서 대신에 연구결과물을 제출해서 연구비를 신청하도록 하면, 행정적인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필요한 업무를 줄일 수 있는 이점도 있다. 계획과 결과가 어긋날 수 없고, 마감 기일이 있으니 지키지 않아도 되고, 연구비를 유용할 수도 없다. 그래서 신청서류와 절차가 간단해질 수 있다. 그 방법은 규제완화와 행정간소화에 크게 기여한다.

연구비가 없어서 연구를 착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경우 또는 연구진행에 특별히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전도금을 받아가고, 연구결과가 출판되었을 때 연구지급 심사를 거쳐 정산하게 한다. 전도금을 받을 때에는 자세한 계획을

9) 연구는 자발적 동기에서 이루어져야 독창적일 수 있다는 것은 증명이 필요하지 않은 자명한 명제이다. 그렇다고 하는 결과가 누구의 어떤 연구에서 증명되었는가 하고 따지고들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창조성의 본질』(Robert J. Sternberg ed., *The Nature of Creativi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이라는 책을 들어 응답하고자 한다. 거기서 여러 사람이 수많은 문헌을 들고, 각자 방법을 동원해, 복잡하기 이를 데 없는 논증을 해서 얻은 공통된 결론이 역시 창의적인 연구는 자발적인 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다. 日本學術振興會編, 『연구와 독창성』(『研究と獨創性』), 東京: 日本學術振興會, 1991)라는 것도 있는데, 일본 학계의 명사들이 동원되어 독창적인 연구에 관해서 전혀 독창적이지 않은 견해를 열거하면서 상식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독창성의 문제는 그런 책에 보이는 방식으로 나를 수 없다고 판단해서 내 자신이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 깨달은 바를 논거로 삼는다.

제출할 필요가 없게 한다. 정산을 해야 할 시한은 정하지 않는다. 정산을 하지 않고 다시 전도금을 받을 수는 없게 한다. 끝내 정산하지 못한 전도금은 정년퇴임 때 반환하도록 하면 된다.

여기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다른 나라의 전례가 없으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풍조가 있어 개혁을 막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널리 살피면 우리가 택할 길이 어디 있는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계 어느 나라든지 연구를 위해서 정부 예산을 쓰면서, 그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으며,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예산의 액수를 가지고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효율을 생각해야 한다.

연구계획서를 심사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제도는 미국에서 만들어내고 또한 가장 많이 쓰고 있으며, 다른 나라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에서는 국가 전체가 아닌 행정부의 어느 기관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진 민간재단에서 연구비를 지급하면서 자기네가 뜻하는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연구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심사해서 채택한다. 그런 절차를 거쳐 연구비를 지급하는 기관이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적합한 것을 고를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처럼 국가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런 방식이 부적당하다. 국가는 특정 목적과 특정 내용의 연구를 골라서 지급하지 말아야 한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구비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를 아무 제한없이 지원해야 한다. 그런 줄 모르고 특정 목적과 내용을 요구하는 연구를 위해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한국에도 연구비를 지급하는 민간재단이 더러 있는데, 대부분은 학문연구 자체를 제한없이 지원한다고 하니 국가에서 하는 일을 보조할 따름이다. 특정 목적을 가진 재단이 특정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은 권장할 일이고, 그 경우에는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그렇지 않은 국가기관, 민간재단, 그리고 대학이 계획서 심사 방식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은 학문연구를 지원하는 일반적인 목적을 특정한 연구를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달성하려고 하는 잘못이 있다. 미국에서 좋은 것은 한국을 위해서 더 좋다고 하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버리고, 그 때문에 생긴 차질을 시정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기존의 제도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해서 연구비를 지급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다른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들어야 논의를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프랑스와 일본을 본보기로 들기로 한다.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보다 작은 나라이고, 연구를 지원하는 일을 국가가 직접 한다. 그 두 가지 점에서 한국의 경우와 같아서 참고로 삼을 만하다. 또한 그 두나라는 내가 가서 교수 노릇을 하면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한 곳이다.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학생이 아닌 교수가 되어 강의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좋은 자료가 된다.

프랑스에서는 인문사회학문 연구가 저서로 출간된 것을 소속대학에 제출하면 심사해서 연구비를 사후에 지급하는 위에서 든 것과 동일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연구를 하기 전에 지급하는 연구비는 없다. 논문은 연구비 지급 대상이 아니다. 내가 1989년 12월부터 1991년 2월까지 프랑스의 파리7대학에 가서 집중강의를 할 때, 그러한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일본에서는 연구비를 대학예산에 넣어 전공 단위로 배정해서 쓰게 한다.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연구비 예산이 전액 국고이다. 그 예산이 적다고 비판하는 소리가 높다. 일본대학의 실정을 비판하고 개탄한 신문의 기획기사에서 연구비 부족을 크게 나무랐다.¹⁰⁾ 그런데 그런 연구비 예산이 일본에는 있고 한국에는 없다. 일본의 교수는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서 연구비를 받지 않아도 연구비가 항시 확보되어 있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1994년 9월부터 1995년 7월까지 나는 일본 동경대학 객원교수가 되어 강의하고 연구하면서 그 제도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¹¹⁾

10) 신문에 현재한 기사를 모아서 책으로 낸 産經新聞社社會部 編, <대학을 따진다>(《大學を問う》, 東京: 新潮社, 1992)에서는 일본대학이 연구비 부족으로 황폐하게 되고 있다고 하면서, 박사과정이 없는 대학의 경우에는 연간 교수가 2,292,000엔, 조교수가 1,366,000엔의 연구비밖에 받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대학의 이름을 들어 지적하고, 심지어는 교수 1인당 연구비가 1,500,000엔도 되지 못하는 곳도 있다고 하면서 대학 이름을 들지 않고 말했다.(88면) 그래서 일본은 망한다고 개탄했다.

11) 내가 소속된 동경대학 문학부 문화교류연구시설 조선문화부문(통칭 조선문화연구실)의 경우에는 교수 정원이 4인(일본인 3인, 외국인 객원교수 1인)이고 실제 인원은 2인(1인을 일본인 교수이고, 1인은 외국인 객원연구원인 본인)인데, 당해 연도에 배정된 연구비가 700만엔(당시의 환율로 한화 약6,000만원)이라고 했다. 그 예산을 책을 사고, 여비를 쓰고, 복사를 하고, 보조인력의 인건비에 충당하는 등 교수 재량으로 사용했다. 나도 그

프랑스의 제도와 일본의 제도 가운데 프랑스의 제도가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의 제도는 연구가 항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이점이 있지만, 연구를 특별히 열심히 하게 하는 자극제가 되지 못한다. 주임교수가 재량껏 연구비를 사용하므로 그 하위의 조교수는 필요한 만큼 혜택을 보기 어렵다. 그 제도를 한국에 도입하면, 한국의 교수들은 일본에서와는 다르게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공평하게 나누어 쓰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프랑스의 제도는 연구해낸 단행본을 심사해서 연구비를 지급하기 때문에 연구자들끼리 마찰이 생길 수 없다.

한국도 프랑스와 같은 제도를 택할 것을 제안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로 한다. 평가대상이 되는 연구업적은 이미 출간되어 있는 단행본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갖춘 저서(또는 주해서나 역서)여야 하며, 기발표논문이 부분적으로 포함될 수는 있으나, 저서의 체제에 맞게 전면 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저도 포함하지만, 일관된 주제와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지 않은 논문 모음은 제외한다.

연구비 지급 대상을 논문으로 하지 않고 단행본으로 하는 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인문사회학문에서는 논문보다 저서가 더욱 중요한 업적이다. 학회지에 발표되는 짧은 논문을 연구업적 평가에서 으뜸으로 여기고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은 자연학문에서 통용되는 기준을 인문사회학문에 부당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인문사회학문에서는 학회지에 발표되는 짧은 논문은 본격적인 저서를 집필하기 위한 부분적인 시험에 지나지 않는다. 학문의 역사를 바꾸어놓은 세계적인 석학의 업적은 모두 저서이다. 그런 석학의 업적목록은 저서와 서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논문은 별반 없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해야 학문이 선진화되고, 세계에 내놓을 업적을 산출할 수 있다.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논문만 대단하게 여기고 저서는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삼지 않고 업적평가에서도 저서 한 권과 논문 한 편을 동일하게 취급해서 저서가 나오지 못하게 막는다. 저서라고 해서 나온 것들을 보면 논문 모음이고 전작

혜택을 입어 많은 복사를 했어도 복사비를 지불하거나 용지를 살 필요가 없었다. 학술여행의 여비는 대학에서 별도로 책정한 것이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 사용할 수 있었다. 11 두 가지 혜택은 내가 서울대학교에 재직하면서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은 아니다. 근래 저술연구를 지원하는 곳이 있으나, 이미 연구되어 있는 성과를 정리해 소개하는 개설서를 요구한다.¹²⁾ 학문 발전의 새로운 경지를 여는 독창적인 연구를 심오하게 해서 일관된 체계를 갖추어 집필한 전작저서는 거의 없다시피하다.

연구비는 학문의 발전을 가속화해서 세계 수준의 선진학문을 일으키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어느 수준의 논문을 쓸 수 있는 사람으면 누구나 해택을 보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버리고, 최고 수준의 전작저서를 쓰는 소수의 뛰어난 학자를 집중해서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작업이 가속화되고 확대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세계학문의 역사를 바꾸어놓는 명저를 내놓은 석학이 여럿 나올 수 있게 지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국가에서 연구비를 써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성과이다.

연구비 지급대상이 되는 업적을 단행본으로 하자는 데는 그런 이유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수집과 정리, 고전의 주해나 번역, 외국도서의 번역 등도 크게 권장해야 할 연구이다. 그런 기초적인 작업이 있어야 본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다. 지금 당장은 창의적인 연구를 하기 어려운 외국학의 분야에서는 번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당장 할 수 있는 최상의 작업이다.

그런데 연구논문을 써야 연구비를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제도 때문에 논문이라고 하기 어려운 논문을 써서 지면을 낭비하기만 하고, 정작 힘써 해야 할 번역은 돌보지 않았다. 출판사에서 제공하는 인세나 원고료를 바라고 연구업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번역을 하는 것은 교수가 할 일이 아니다. 이제 그런 잘못을 바로잡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주석이나 번역을 연구업적으로 평가하고, 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¹³⁾ 그런 작업에 원고료가 아닌 연구비를 지급해야

12) 대우학술재단에서는 대학원 수준의 교재가 되는 저서를 집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그렇다면 전에 없던 연구를 해서 새로운 이론을 전개하는 모험을 하는 것은 요구 조건 위반이다. 서울대학교에서 지급하는 저술연구비에는 그런 조건이 없으나, 독창적인 연구를 하기 힘들어서 연구논문을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분야에도 연구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저술연구비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한다.

13) 국내외의 고전에 관해 주해와 번역을 자세한 해체와 함께 한 성과가 크면 석사 또는 박사학위논문으로 인정하는 것도 당장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외국문학 분야의 학위논문은 해체·번역·주해로 이루어지는 것을 표준형태로 삼을 만하다.

한다. 그런 작업 또한 단행본 단위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연구비 지급대상을 단행본으로 한다.

연구비 지급대상이 되는 단행본은 한국어로 쓴 것으로 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 한국인 학자가 외국어로 쓴 책이나 한국의 책을 외국어로 번역한 업적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한다. 단행본의 저자가 한국인이어야 할 이유도 없다. 외국인 이 한국에 관해서 연구한 저서이거나 한국의 작품이나 도서를 번역한 책에도 연구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학문이 세계에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2.3. 연구비 신청과 선정 절차

연구자는 연구비 지급을 희망하는 단행본을 소속대학에 제출하는 것으로 연구비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다. 소속대학에서는 제출된 업적을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송부한다. 한 사람의 연구자가 한 해에 단행본 한 권만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서를 여러 권 냈으면 모두 제출해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심사에 통과되면 연구비를 여러 건 받을 수 있게 한다. 연구비를 연속해서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두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다. 모든 절차에서 안배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한다. 평가위원회 선정위원회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한국학술진흥재단이 마련한 연구자 데이터베이스를 적극 활용하고, 실무자의 보조를 받는다. 평가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업적을 검토하고, 업적의 성격과 내용을 보아 적임자라고 판단되는 평가위원을 업적당 각 50인씩 선정한다. 많은 인원이 평가에 참가해야 결과가 공정해질 수 있다.

평가위원은 저술 내용의 다양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분포되어야 하고, 출신대학, 소속대학, 연령층 등이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 대학전임은 아닌 박사학위 소지자도 포함시킨다. 경우에 따라서서는 박사과정 학생에게 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평가에 학계의 공론이 널리 반영되도록 한다.

평가위원에게는 심사대상이 되는 단행본 구입비를 소정의 평가수당과 함께 위촉시 지급한다. 그렇게 해서 자료를 송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고, 연구비를 신청하는 당사자가 평가위원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업적을 보내야 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한다. 평가결과는 비밀리에 작성해서 우편으로 회보한다.

모든 평가위원의 평가 결과를 평균해서 최종평점을 계산한다. 그 일을 평가위원회에서 한다.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평점은 제외하고, 그런 평점을 한 사람은 평가위원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 최종평점을 평가위원들에게 알려주어, 각자의 평점과 비교할 수 있게 한다. 평가위원으로 선임되고 평가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고 부정확하게 한 사람은 연구비 신청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게 한다.

평가할 항목은 다음과 같다.

- (가)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학문 또는 연구분야를 개척했는가?
- (나) 학문의 역사를 바꾸어놓을 만한 새로운 방법론 또는 이론을 제시했는가?
- (다) 연구자에게 널리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자료, 고전, 외국서 등에 관해서 소개, 수집, 정리, 주해, 번역 등을 한 공적이 현저한가?
- (라) 자료를 입수하고 이용하고 분석하는 데 많은 경비가 소요되었는가?
- (마)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는 힘든 작업을 했는가?
- (바) 한국의 문화와 학문을 외국에 알린 성과가 큰가?

각항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점을 한다.

- (A) 학계의 최고수준을 끌어올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이루었다: 10점
- (B) 학계의 최고수준에 이르러, 기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6점
- (C) 학계의 최고수준에 근접해서, 기대하는 바에 다소 미치지 못하지만 그 나름대로 인정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2점

6점 이상이면 연구비를 지급한다. (가)에서 (바)까지의 어느 한 가지 조건이라도 만족스럽게 충족시켰으면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다. 연구비 액수는 평가점수 1점당 100만원, 최고 5000만원에서 최저 600만원으로 한다.

소속대학에도 연구자가 받는 것과 동일액수의 지원금을 주어, 연구를 돋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연구를 돋는 일은 도서관에서 도서를 구입하고, 연구를 위해서

강의시간 기타의 임무를 경감하고, 연구에 필요한 작업공간을 제공하고, 출판부에서 연구결과를 출판하는 등을 말한다. 그런 지원금을 대학에 지급하는 것은 대학평가에 의한 차등지원의 최상방안이다.

연구비 지급액과 동일액수를 대학에 주기 위해서는 현재의 연구비 예산 외에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가 대학 지원에 사용하기로 한 예산을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연구를 활성화하는 강의

지금의 제도는 강의와 연구를 분리시키고 있다. 교과과정을 고정시켜 놓고 해마다 같은 과목을 되풀이해서 개설한다. 교수는 자기 전공분야의 교과목을 반복해서 담당한다. 담당하는 교과목에서 요구하는 고정된 내용을 구체화해서 강의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추가할 수는 있어도 교과목의 내용을 온통 바꾸거나 새로운 교과목을 임의로 개설할 수는 없게 한다.

교과과정을 고치려면 학과 단위, 단과대학 단위, 대학 전체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가 복잡하고,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워, 수십년이나 묵은 교과과정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예사이다.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교과목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그 가운데 일부만 바꿀 수는 없다. 다른 교수들도 담당할 수 있는 교과목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자기만 강의할 수 있는 새로운 교과목은 등장할 수 없게 막는 제도를 택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연구되어 있는 기존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강의의 임무로 삼기 때문이다. 기존의 지식이란 대부분 외국에서 연구한 것이다. 학문을 발전시키는 것은 선진 외국에서 할 일이고, 한국의 대학은 그 결과를 받아들여 이용하면 된다고 하는 생각에서 그런 제도를 마련했다. 강의 개설에 관한 교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제한해서 그 방침에 차질이 생기지 않게 막고 있다.

고정되어 있는 교과내용을 교수 나름대로 구체화하고 자기 관점에서 가감하

는 것은 교수가 언제나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창조자가 하는 일이 아니고 가공자가 하는 일이다. 교수가 기존지식 특히 외국에서 수입한 지식의 가공자에 머무르고 새로운 지식, 새로운 학문의 창조자일 수 없게 하는 것이 지금의 제도이다.

한국의 대학은 지금 외국에서 수입한 기존 지식의 전달자 노릇이나 하는 교수가 상투적이고 고식적인 강의를 수준을 한껏 낮추어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탓에, 대학에서 학문 연구를 하지 못해, 우리 역사 발전의 지침이 되는 이론을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 그래서 학문의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한다. 경제는 선진화하고, 대외교역에서 경쟁력을 가져야 하고, 무엇이든지 일 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면서, 학문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¹⁴⁾

강의에서는 기존지식을 수입해서 전달하라고 요구하더라도 교수 개개인이 연구를 열심히 하면 한국의 학문이 선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불가능하다. 기존 지식을 전달하는 교수의 본분을 수행하는 여가에 창의적인 연구를 사사로이 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다. 그래서는 연구할 시간이 없다.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강의를 통해서 발표하고 검증하며, 학생들을 토론자나 공동 연구자로 해서 함께 노력하지 않고서는 연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연구와 강의의 일치가 연구를 발전시키고 강의의 수준을 향상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건이다.

교수가 새롭게 연구하고 집필하는 내용의 강의를 임의로 개설할 수 있는 것이 유럽에서 확립된 전통이다. 그런데 대학교육이 대중화되고, 학생들이 취업을

14) 미국의 학자가 제3세계의 고등교육에 대해서 쓴 책, 필립 알트바하, 김성재 역, 『제3세계의 고등교육』(서울: 현대사상사, 1992)에서 제3세계 여러 나라는 선진국의 학문을 수입하기만 하고 학문의 창조자 노릇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다음과 같은 데 있다고 한 말에 깊이 유의해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들은 최소한 교수들에게 얼마간의 연구 성과를 기대하지만, 제3세계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대는 시간, 시설 혹은 하부구조의 부족 때문에 때때로 문제가 된다. 많은 제3세계 국가들에서는 교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거의 없다. 도서관 장서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 최근의 새로운 지식을 접하기 어려우며, 과학분야에서는 실험 시설과 특히 현대적 장비가 부족하다. 총괄적으로 연구를 위한 조건이 부족하며, 따라서 제3세계 교수들의 학문적 성과가 낮은 것은 당연하다.”(30면)

위해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생겨 그런 전통이 다소 퇴색했으므로, 그 전통을 살리는 방법을 별도로 강구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대학의 등급을 나누어, 연구 중심, 대학원 교육 위주의 대학의 교수는 자기가 연구해서 강의하고, 등급이 낮은 대학의 교수는 남들이 이미 해놓은 연구를 전달하는 강의를 하도록 하는 새로운 관례가 미국에서 마련되었다. 교수만 있고 학생은 없어, 새로운 연구를 발표하는 공개강의를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게 해서 학문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프랑스 방식의 보완책이다.¹⁵⁾

강의와 연구를 일치시키는 전통이 없고,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보완책을 전혀 강구하지 않은 한국의 대학은 모두 삼류대학이다. 한국의 어느 대학은 신입생의 입학시험 성적이 다른 여러 대학보다 우수해서 일류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부당한 말이다. 한국의 대학은 모두 학문의 생산업에는 종사하지 않고 유통업이나 종사하니 삼류대학을 면하지 못한다. 삼류대학만 있는 나라는 삼류국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다.

한국에도 미국의 전례를 따라서 대학원대학을 별도로 두자는 주장이 있으나,

15) 프랑스에는 '프랑스대학'(Collège de France)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대학에는 학생은 없고 교수만 있어,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공개강의를 한다. '고등연구학원'(École des Hautes Études)이라고 직역할 수 있는 대학 두 곳의 교수들도 공개강의를 하면서, 박사 논문 지도만 맡는다. 지금과 같이 대학이 평준화되기 전에, 소르본느(Sorbonne)대학을 가장 명문대학으로 여겼다. 그런데 프랑스 석학들이 소르본느대학에서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귀양살이를 하다가 60세나 되어서 '프랑스대학'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고, 빼어드는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學問人』(Homo academicus, Paris: Les Éditions de Minuit, 1984)에서 개탄하면서 말하면서, 레비-스트로스(Claude Lévi-Strauss)의 경우를 들어 '프랑스대학'이 학문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하는가 밝혀 논했다.(142~143면) 레비-스트로스는 59세에 '프랑스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때부터 "나의 강의는 언제나 방청객을 모아놓고 피고의 진술을 하는 것이었다. 생각하고 있는 바를 잠정적인 것인지를 틀린 것인지를 형체를 갖추어 발표해야 했으며, 그 다음에 출판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구두발표를 거쳐 이루어졌다"고 스스로 술회한 말을 『學問人』에서 인용했다. 인류학이면서 철학사상인 레비-스트로스의 학문이 그래서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뻗어날 수 있었다. 인도유리피안의 신화와 서사시에 관해서 방대하고 치밀한 연구를 한 듀메질(Georges Dumézil)의 업적 또한 '프랑스대학'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다. 듀메질이 자기 저서마다 그 책에서 다른 내용을 언제 어떻게 강의를 했는가 밝히는 서문을 써놓아, 끝없는 부러움을 자아낸다. 연구발표의 공개강의와 연구저서에 사후 연구비를 주는 두 가지 제도가 프랑스가 인문사회학문의 이론 개척에서 줄곧 선두에 설 수 있도록 한다.

그럴 수 없다. 미국에서는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저절로 생겨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 대학원대학을 한국에서는 관습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대학의 서열을 공인해서 정부에서 지정하려고 한다. 대학원대학이 되리라고 예상하는 몇몇 대학의 교수들은 연구와 강의를 일치시키는 연구를 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대학원대학이 되어 교수 양성업을 독점하고 국내에는 경쟁자가 없어지면, 안심하고 놀고 먹을 것이다. 대학원대학의 부실화 때문에 외국유학의 필요성이 더 커질 것이다. 대학원대학을 지정하면서 교수를 일제히 이동시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상의 교수가 아무리 부지런히 노력해도 연구의 여건상, 학문의 특성상 연구와 강의를 일치시키지 못할 분야도 적지 않다.

이 경우에도 미국의 방식보다는 프랑스의 방식이 우리에게 더욱 적합하다. 연구발표의 공개강의 하는 교수들만 있고 학생은 없는 학술원대학 같은 것을 별도로 만들 만하다. 그러나 그 절차가 복잡해서 쉽게 성사되지지 못하고, 양로휴양소나 설치해 사회복지에 기여하고 말 염려가 크다. 그러므로 현재의 여건을 그대로 두고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적인 개혁을 해서 효과는 극대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 하고 있는 고정된 교과과정에 의한 통상적인 강의와 교수가 재량껏 할 수 있는 연구특강으로 강의를 양분한다. 연구특강은 교수가 한 학기 강의를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토론하는 강의이다. 연구특강은 반드시 새로워야 하며 제목이 같거나 내용이 같은 것을 두 번 하지 못한다. 연구특강의 결과는 저서로 출판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서로 출판한 내용을 되풀이해서 강의하지 못한다. 연구특강을 한 내용은 저서로 집필해서 연구비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특강을 언제 어떻게 했던가 저서 서두에서 명시하는 것을 관례로 삼는다.

연구특강은 희망하는 교수가 한 학기에 한 과목만 개설할 수 있게 한다. 모든 교수가 일제히 연구특강을하도록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특강을 위해서 학과내의 다른 교수와 협의해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게 한다. 어느 학과의 강의를 넘어서서 여러 학과의 영역에 걸쳐 있거나, 여러 학문을 통합하거나 새로운 학문을 개척하는 강의도 재량껏 개설할 수 있게 한다. 연구특강의 제목, 성격, 내용 등을 명시한 강의계획을 제출해야 강의개설이 가능하게 하고, 그 내용을 널

리 알려 수강자가 미리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연구특강은 대학원 수준의 강의여야 하지만, 학사과정의 학생도 수강할 수 있게 한다. 수강자는 학과의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어느 것이든 연구특강을 몇 개 이상 수강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연구특강은 공개강의로 해서 교내의 수강신청자가 아닌 어떤 외부의 사람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게 한다. 다른 대학의 대학원 학생은 수강신청해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 대학원을 마칠 때까지 연구특강을 몇 개 수강해야 한다고 할 때 교내외의 것을 구분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전국 모든 대학에 걸쳐 있는 통합 대학원대학이 생기게 한다. 연구특강에 관한 정보를 교육부에서 일괄해서 정리해서 책자 발간, 전산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린다. 그 업무를 학술원에서 담당하게 하는 것도 생각할 일이다. 연구특강을 하는 교수에게는 대학 또는 국가에서 일정액의 특별강의료를 지급해서 강의을 운영하고 내용을 충실히 하는 데 사용하도록 한다. 교수의 소속대학에 지원금을 주어, 외부의 수강자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출되는 비용에 충당하게 한다.

4. 연구도서 확보의 실현 가능한 방안

여러 대학에서 부지런히 도서를 모으고, 그렇게 할 수 있게 정부에서 보조를 한다 해도, 연구를 할 수 있는 수준의 도서관을 만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연구비를 지급하는 액수만큼 대학에 보조금을 주어 도서 확보에도 활용하게 하자는 것은 연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특정 연구자를 위해서 필요한 어느 영역의 도서를 집중해서 모으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그정도의 대책으로 대학도서관이 바람직한 수준에 이를 수는 없다. 미국에서 하는 방식을 본떠서 도서확보에서도 대학끼리 경쟁하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방이다.

국내의 대학도서관 가운데 장서가 가장 많다는 서울대학교의 경우에 장서수가 150만권 정도이다. 국내의 일등이 외국 선진국은 물론 중진국의 대학과 견주

어보아도 최하위급이어서 경쟁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대학도서관을 강화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방안이다. 생각을 돌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전례도 알아야 한다.

일본에서는 동경대학을 특별히 육성해서 650만원 정도의 도서를 확보하게 했다. 그러나 일본의 방식은 특정대학이 아닌 다른 대학 교수는 연구하기 어렵게 한다. 동경대학의 도서는 학과별로 소장하고 있어, 동경대학 안에서도 이용이 원활하지 못하다. 우리는 대학도서관을 차등화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나 대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립도서관을 육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용을 자유롭게 하면서도 무분별한 대중화를 피하고, 교수나 박사과정이 우선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프랑스의 방식이다.¹⁶⁾

우리도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국립도서관에 집중해서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국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그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다. 연간 500억 정도의 예산을 책정해 도서를 100만권씩 사모으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정도의 돈이 없어 고민인 것은 아니다. 없어질 위기에 놓인 고서를 모으는 것도 거기서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정념퇴임하는 교수들의 장서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한다. 그밖에도 할 일이 많으나, 여기서 다 열거하지 않기로 한다.

국립도서관을 그렇게 만드는 과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너무 지연되는 경우를 생각해서 차선책도 제시한다. 학술잡지만 따로 떼어내서 모을 수 있다. 세계 각처에서 모아들인 학술잡지 수록논문을 전산망으로 전국 각대학에 제공하고, 필요한 논문을 컴퓨터 화면에 불러내어 열람하고 복사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16) 프랑스의 대학도서관에는 연구를 위한 도서가 충분하지 못하다. 파리7대학의 도서관은 장서가 빈약한 편이다. 그전에 최고명문대학 소르본느대학이었던 곳(지금은 파리3대학과 파리4대학)의 도서관도 내가 실제로 이용해보니 대단하다 할 것이 없었다. 여러 가지 성격의 공공도서관이 많이 있어 각기 그 나름대로 긴요한 구실을 하지만, 여러 분야의 장서를 구비한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국립도서관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연구를 위한 도서를 충실히 모아놓는 방침을 택했다. 그러면서 국립도서관 이용 자격을 박사과정 학생 이상의 학자로 제한했다. 나는 한국의 교수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주불한국대사관에서 받아가서 비로소 이용할 수 있었다. 미테랑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후대에 남기는 도서관을 거대한 규모로 신축하도록 해서 국립도서관을 이전한 다음에는 이용 자격 제한을 풀었으나, 국립도서관이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비해 학문연구를 위해 제공하는 도서관인 점은 변함이 없다.

크게 학문을 살리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된다. 그렇게 하면 외국 학술잡지를 누구나 쉽게 이용하면서, 각대학 도서관에서는 중복해서 구독할 필요가 없어, 예산 절감이 크게 된다. 전국 모든 대학에 거액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지금 전산망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도서구입이나 학술정보 전달이 미국 것에 치중되고 있어 커다란 폐단을 자아낸다. 그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자료를 얻는 원천을 최대한 다원화해야 한다.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최대한 범위, 국내의 외국어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언어, 모든 나라의 도서와 잡지를 모아야 한다. 그것을 해독하고 이용하는 데 그 모든 언어의 전공자들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¹⁷⁾ 다원화된 학술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협정을, 미국의 정보 독점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와 맺을 필요가 있다. 자기 나라의 것은 자기 나라에서 모으거나 입력해서 서로 교환하는 방식을 택하면 피차 유리하다.

5. 국제학술회의에 관한 시정 사항

국제학술회의를 자주 여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자랑거리일 수 있다. 그런데 평가할 만한 내용이 없는 허장성세에 지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지금 여러 연구기관에서 다투어 열고 있는 국제학술회의가 어째서 잘못되고 있는가 밝혀 논해야 한다.

국제학술회의가 허망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거는 주제가 막연하고 학문연구상의 쟁점이 없어, 알찬 발표를 하기 어렵게 하는 데 있다. 새로운 연구가 진행되는 것과 관계 없이, 수십년이나 늙은 생각으로 상식적인 기획을 한다.

17)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연구를 만족스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월남의 역사, 티베트의 서사시, 페르시아의 종교시, 비잔틴의 聖者傳, 동아프리카 스와힐리어의 소설 등에 관해서 그 나라에서 연구한 최근의 성과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책과 논문이 국내 도서관에 구비되어 있고, 각 언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본다.

그 때문에 들인 돈이 많고 행사 규모가 클수록 김이 더 샌다. 학자들은 시간 낭비라고 판단해서 외면하고, 일반청중은 학술행사이니 범접하지 않는다. 발표문을 모아서 단행본으로 출판해도 관심을 끌지 못한다. 또한 준비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발표 논문을 제대로 쓸 겨를을 주지 않는다. 연구비를 지급해서 일년 동안 연구하게 하는 것과는 별도로, 한두 달 만에 발표논문을 써내라고 한다. 발표논문 집필에는 소액의 원고료만 지급한다. 새로운 연구를 하지 말고 이미 있는 밀천을 재탕하라는 요구이다.

유사한 행사가 너무 많아, 외국의 한국학자들은 한 해에 몇 번씩 불리어 온다. 몇 사람 되지 않은 외국의 한국학자들이 거듭되는 행사에서 비슷한 발표를 계속 해서 하게 한다. 그 상대역이 되는 국내의 학자들도 여러 행사에 겹치기로 출연하게 한다. 그래서 양쪽 다 연구할 시간은 없게 한다. 한국학 밖의 분야에서는, 학문연구의 일선에서 물러나 있어 이름은 높으나 실속은 없는 학자들을 석학이라고 여겨 초빙한다. 너무 많은 곳에 불리어다니느라고 기력이 소진되고, 할 말이 없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도 부른다. 그러면 관광여행이나 하는 기분으로 온다. 새로운 연구를 세차게 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서 부르지 못한다.

국제학술회의는 한국학문의 연구성과가 광범위한 비교고찰을 거쳐 세계의 이론으로 정립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을 때 개최해야 한다. 그런 분야에서 그런 주제로 대회를 조직해서, 국내의 연구성과를 밖으로 알리면서, 공동연구나 비교연구를 할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을 갖춘 외국의 학자들을 불러서 함께 작업을하게 한다. 많은 시간 여유를 가지고 사전에 충실한 계획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 학자들끼리는 사전에 예비모임을 가지고, 예비발표를 해야 한다.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면 국제학술회의를 실제로 개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

거대한 장소에서 많은 청중을 모아 성대하게 벌이는 행사보다는 참가자들끼리 오붓한 자리에서 장시간에 걸쳐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다. 학술회의를 한 성과는 반드시 출판되어야 한다. 한국어판과 외국어판이 동시에 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술회의를 한 성과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는 것은 출판을 통해서 가능하다. 출판된 책이 연구비 지급을 위한 업적평가에서 최상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지

출한 모든 예산은 낭비한 것이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한국학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학문 분야의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해서 논문을 발표하고 토론하며 여러 나라 학자들과 교유하는 것이 또한 긴요한 일이므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사전 지급보다도 사후 지급이 더욱 효과적이 방법이다. 국제학술회의가 끝나면 발표된 논문 가운데 좋은 것만 골라서 책을 낸다. 책이 나왔을 때 책에 실린 논문을 제출해서 대회참가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포함된 연구비를 받게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다.

위에서는 단행본에 한해서 연구비를 지급하자고 했는데, 국제학술회의 논문집을 포함한 국제적인 논문집에 실린 논문은 연구비 지급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논문만 보내서 실린 것보다 학술회의에 참가하고 논문이 실린 것에 더 많은 연구비를 지급해야 한다. 경비가 많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학문을 밖에 알리는 데 더욱 기여했기 때문이다.¹⁸⁾

그런데 국제학술회의 참가자 가운데 관광여행을 사실상의 목적으로 하고 수준 미달의 논문을 발표해서 실망스럽게 하고, 회의장에는 잠시 들렸다가 자취를 감추는 사람이 적지 않아 문제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해도, 그 회의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를 능숙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은 할 말이 없고, 할 말이 있는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해서, 양쪽 다 기여하는 바가 적을 수밖에 없다.

내 자신이 관여하고 참여한 국제비교문학회의 발표대회를 들어 실상을 확인해보자. 거기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영어와 불어이므로 그 두 말 가운데 하나로 발표해야 하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그 두 말을 다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한국의 영문학과나 불문학과 교수는 그 가운데 한 말로 발표는 하지만 할 말이 별로 없다. 국문학과 교수는 할 말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해서 곤란을 겪는다. 양쪽의 능력을 겸비하고, 자기 스스로 연구한 한국학문의 진수를 세계화하는 학자들이 나와야 한다.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서, 국학과 양학을 함께 하는 학자들이 나와 한국의 학문을 세계의 학문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적극 노력해야 한다.

18) 국제비교문학회의 발표대회를 정리하는 논문집에 내 논문을 신기로 했다고 하는, 1997년 11월 24일자 편집책임자 Lieven D'Hulst 교수 명의의 공문이 있다.

국제비교문학회의 발표대회에서 내 자신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다. 스스로 영어로 쓴 논문을 영어로 발표하고, 토론에서는 영어와 불어를 함께 구사했으며, 개별 발표를 예정대로 한 것 외에 종합토론에서 발제자 노릇을 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는 말을 말아서 하기까지 했다. 국문학과 교수인 내가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근래 한국문학사의 전개를 다른 여러 나라 문학과 비교해서 고찰하면서 세계 문학사 서술의 이론을 정립하는 작업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보다 먼저 학생 시절에 불문학과를 졸업한 다음 국문학과에 편입해서 다시 공부한 밀천이 있기 때문이다. 불문학과 시절에 영문학과 독문학도 함께 공부하려고 애쓴 것이 계속 도움이 된다. 한문·중국어·일본어는 국문학을 전공한 후에 익혔다. 그러나 산스크리트나 아랍어 같은 동아시아나 유럽이 아닌 다른 문명권의 언어는 공부하지 못한 것은 세계적인 범위의 학문을 제대로 하기 어렵게 하는 결격 사유이다.

대학의 편제를 고쳐 여러 분야를 함께 공부하고, 국학과 양학을 합칠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도록 해야 한국학문의 세계화가 촉진된다. 여러 분야에 걸친 심오한 연구를 실제로 해서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학자가 다수 배출될 수 있게 대학을 개혁해야 한다. 어느 한 나라에 유학해서 그 나라 학문만 하지 말고, 한국에서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의 학문을 하면서 여러 나라에 한두 해씩 가서 머무르면서 필요한 훈련을 하고 자료를 얻는 방식을 택해야 세계적인 학자로 성장할 수 있다.

6. 한국학문의 세계화 촉진 방안

한국학문이 국제적으로 진출해서 세계의 학문으로 인정되고 세계학문의 발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업적이 외국어로 출판되어야 한다. 국내의 학자가 책을 직접 외국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런 업적은 위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연구비 지급 대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연구를 개척하지 않고 이미 연구한 성과를 정리해서 소개했어도 그 노고를 치하해서 연구

비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금년 1997년에 *Korean Literature in Cultural Context and Comparative Perspective*라고 하는 영문저서를 냈다. 제목을 번역하자면 “문화적 상황과 비교연구의 전망에서 본 한국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입문서이며, 한국문학의 전반적인 문제를 내 학문의 관점에서 다룬 내용이다. 외국에서 한국문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적절한 안내서가 있어야 한다는 거듭된 요청이 있어, 책을 쓰고 내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했다.

절반 정도는 내가 영어로 쓰고 절반 정도는 여러 사람이 번역한 글을 고치고 다듬어서 냈으며, 자진해서 봉사하는 미국인 신진학자가 있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한국어 저서를 넬 때보다 힘은 더 들면서 업적으로 인정되는 보람은 적다. 이런 작업은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잘 팔리지 않을 책이어서 인세를 책으로 받아 외국에 많이 기증했다. 국제비교문학회 발표대회에 참가할 때 가지고 가서 여러 나라 사람에게 기증했다. 서울에 있는 집문당에서 출판을 맡았는데, 출판사에서도 수고만 많이 하고, 완전히 저자이다. 그런데 그 손해를 보상할 길이 없다. 저자에게도, 출판사에게도 수고를 보상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이런 일을 할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한국의 학자가 외국어로 책을 쓰는 것은 앞으로 힘써 해야 할 일이다. 이미 내놓은 책은 번역을 해야 하고, 앞으로도 번역해야 할 책이 더 많을 것이다. 외국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데 힘쓰던 시대에서 한국어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것을 새로운 과제로 삼아야 할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데 필요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번역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외국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한국인이 외국어를 공부해서 하면 되었다. 그러나 한국어 책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일은 한국어를 익히고 한국학을 전공한 외국인이라야 잘 할 수 있다. 번역은 번역되는 말이 모국어인 사람이라야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변함없는 원칙이다. 또한 한국어로 번역한 책은 한국에서 팔아야 하지만, 외국어로 번역한 책은 외국에 내놓을 것이니 그 나라 사람이 번역을 맡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이 한국어 책을 번역하도록 하는 방법이 문제이다. 번역할 책을 정해놓고 번역할 외국인을 찾아 소정의 보수를 주고 일을 맡기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은 아주 잘못되었다. 외국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자발적으로 번역해야 번역이 잘 되고, 번역서가 제대로 유통된다. 외국인이 자기 나라에서 소용되고, 환영 받을 것을 찾아내서 번역해야 번역하는 보람이 있다. 그렇게 해야 수출품으로 만든 물건이 국내 창고에 쌓여 있거나 밖에 나가 온갖 천대를 받는 것과 같은 불행을 피하고, 수출이 실제로 성과 있게 이루어진다.

일이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국학을 하는 외국인을 양성하는 데 돈을 써야 한다. 한국에 와서 유학을 하도록 장학금을 주어 권유하고, 오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 실력이 평가된 논문을 내서 한국학의 박사가 되면 대학교수가 되지 않아도 한국학의 번역과 연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한국에 와서 한국학의 박사가 된 외국인은 국제한국학연구원이라고 할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되어, 생활비와 연구비를 받으면서 한국학연구에 평생토록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자기 나라에 가서 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일년에 한 번쯤 협의회에 참석해 활동보고를 하기 위해서 한국에 오도록 한다. 그런 협의회를 국제학술회의라고 떠벌이지 말아야 한다.

외국인 연구자가 받는 생활비는 고정급으로 하고, 연구비는 번역하고 연구한 성과를 평가해서 액수를 책정하는 방식을택한다. 대학이나 다른 연구기관에 취직을 하게 되면, 생활비는 제외하고 연구비만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지급한다. 외국학자가 한국에 관해서 연구한 성과는 저서이든 역서이든 국내 학자의 연구물과 동일한 자격으로 연구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외국의 한국학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번역해내서 그 나라 학계에서 크게 평가를 얻을 수 있는 한국어 원본의 저작을 하는 것이 국내에서 힘써 해야 할 일이 다. 작가는 작품을, 학자는 연구서를 우리 문화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창조물이 되게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만 수출할 물건이 있다. 인류를 위해서 크게 기여하는 물건이라야 당당하게 수출할 수 있고, 수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7. 마무리

이상에서 논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긴요한 것을 간명하게 정리해,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로 이용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그렇게 해야 할 자세한 이유와 제도 개선의 구체적인 방안은 본문에 있으므로 되풀이하지 않는다.

- (가) 연구비 지급 제도를 개선한다.
 - (가1) 연구비는 연구계획이 아닌 연구결과를 심사해서 사후에 지급한다.
 - (가2) 연구비를 지급하는 인문사회학문 분야의 연구결과는 전자저서로 한다.
 - (가3)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인원을 다수로 한다.
 - (가4)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와 같은 액수의 보조금을 연구자의 소속대학에도 지급해서, 연구지원에 사용하게 한다.
- (나) 연구를 활성화하는 강의를 한다.
 - (나1) 고정된 교과과정에 의한 통상적인 강의와는 별도로, 새롭게 연구하고 있는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연구특강을 희망하는 교수가 임의로 개설할 수 있게 한다.
 - (나2) 연구특강은 공개강의로 하고, 전국의 대학원학생들이 자기 대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수강할 수 있게 한다.
- (다) 연구도서를 확보한다.
 - (다1) 연구에 필요한 도서를 국립도서관 같은 한 곳의 도서관에 집중해서 모아 모자람이 없도록 한다.
 - (다2)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학술잡지의 공동구입과 공동이용을 먼저 추진한다.
- (라) 국제학술회의 개최와 참여 방식을 개선한다.
 - (라1) 한국이 주최해서 개최하는 국제학술회의에서 최고 수준에 이른 한국학문을 세계화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그 결과를 출판한 책이 최고의 연구업적이 되도록 조직하고 운영한다.
 - (라2) 한국인 학자가 외국에서 주체한 국제학술회의에 참가할 때에도 그런 성과를 거두도록 한다.

(마) 한국학문 번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한다.

(마1) 한국학문의 세계화에 종사하는 외국인 학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해서 항상 활동하게 하고, 업적에 따라 추가지원을 한다.

(마2) 외국인이 한국에 관해 연구한 업적이나 한국의 도서를 번역한 업적도 위의 (가)항의 연구비 지급 대상에 포함한다.

이상과 같은 결론은 학문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처방이다. 이 처방의 효력을 보장하고, 실현을 촉구하기 위해서 학문연구 전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필요가 있어 앞에서 긴 논의를 했다. 학문정책은 학문을 하는 정책이 아니고 학문을 위한 정책이다. 학자가 학문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직접 관여하는 것은 학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낭비하는 배신행위이다. 학문정책은 그 일에 진력하는 사람이 담당해야 한다. 그런데 학문정책을 어떻게 하면 학문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는 가장 바람직한 방식의 학문을 실제로 해서 성과를 내놓는 학자에게 문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 점을 망각하면 학문정책의 목표가 잘못 설정된다.

학문정책은 학문이나 학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니, 고답적인 자세는 버려야 한다. 학문정책은 학자 다수를 위한 복지정책이 아니니, 여론조사 방식은 버려야 한다. 학문정책은 오직 학문이 바람직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책이어야 한다. 무엇이 바람직한가 그릇 판단하면, 학문정책 때문에 학문이 침해될 수 있다. 학문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만큼 학문이 왜곡될 수 있다.